

국립공원 이용규제 정책에 대한 탐방객 태도

- 설악산·덕유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Visitors' Attitudes to the Use Regulation Policies in Korean National Park System

- Focused on Seolaksan · Dukyusan National Parks -

유기준^{1*}

¹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관광학부

I. 연구의 목적

국립공원에서의 휴양활동은 공원내 자원에의 주 영향요소로서 국립공원내 인간의 휴양활동이 존재하는 한 국립공원내 모든 자원은 인간에 의한 변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유기준과 김용근, 2000). 결국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는 공원자원의 이용주체들에 의한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탐방객 관리는 인간의 가치와 행위의 복잡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공원관리에 있어 필수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Kuss, 1990).

공원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대안의 마련은 관리자의 고유한 영역이며 관리자의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신원섭, 1998),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정책의 마련은 공원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수립 주체로서의 관리자와 영향주체로서의 탐방객들의 인식의 조화와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유기준과 김정민, 2003).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와 탐방객 인식 조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이용의 많은 부분에 있어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탐방객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해 관리자와 탐방객의 인식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공원내 탐방객에 의한 관리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탐방객 행위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즉, 문제해결을 위해 탐방객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적용하게 되지만 탐방객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관리자와 같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있어서도 공원관리를 위한 규제정책으로서 탐방객 행위에 대한 규제를 자연공원법에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벌칙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주로 관리자나 전문가들의 시각이 보다 많이 작용되어 왔다(유기준과 김정민, 2003). 그러나 규제정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규제대상인 탐방객들의 규제 사안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이용 규제정책에 대한 탐방객 태도 파악의 중요성부터 계획되었으며, 설악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서의 규제사항 및 적용정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공원규제 정책의 집행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지인 설악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하고 귀가하는 탐방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지를 방문한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전반적인 이용 특성, 자연공원법상의 이용규제 조항에 대한 인식, 각 이용규제 조항별 적절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용규제 조항은 자연공원법상의 벌칙조항중 탐방객 이용에 관련된 조항들만 도출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는 2003년 7월 25일부터 2003년 8월 30까지 조사방법론을 교육받은 대학생 조사요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탐방객 직접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3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부실한 설문지 12매를 제외한 325매를 유효표본으로 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0.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조사지역별 유효표본은 설악산국립공원 176매(54.2%)와 덕유산국립공원 149매(45.8%)로 지역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성 65.6%, 여성 34.4%로 남성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4.1%, 40대 19.5%, 50대 8.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이용규제 및 행위제한 관련 정책이 탐방객 휴양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2.1%가 휴양활동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은 22.1%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이용규제 및 행위 제한과 같은 규제정책에 의해 탐방객 휴양활동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유기준외, 2001; 유기준과 김정민, 2003)에서 나타난 것과 결과와 유사성을 보였다.

공원이용 관련 정보는 주위사람들의 구전을 주 정보원천으로 이용한 응답자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국립공원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응답비율도 25.3%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 이용이 생활의 일부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공원이용이나 휴양관련 정보도 역시 인터넷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원관리 관련 홍보, 제도, 교육 등에 있어서도 인터넷 활용을 통한 효율성이 기대된다.

대다수의 응답자(67.0%)들은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이용규제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법상의 이용규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27.5%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에 의해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5%가 인터넷 통해서 그리고 21.6%의 응답자가 방송매체를 통해 알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연공원법의 인지 정도는 연령별, 교육수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극히 적은 수의 응답자(2.8%)만이 자연공원법의 이용규제 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중인 국립공원내의 벌칙조항 및 이에 대한 과태료 수준에 대한

탐방객 태도를 「전혀 적절치 않다(1점) ~ 매우 적절하다(5점)」의 5점척도로 측정한 결과, 10개 전 항목의 평균값이 3.33부터 3.82 범위로 나타나 탐방객들은 이용규제 수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현재의 규제정도 및 과태료 수준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받아 드리고 있으며 탐방객의 휴양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처벌경험 유무에 따라 평가치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처벌경험이 있는 탐방객의 경우 과태료 수준을 매우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나타났다.

IV. 결론

그 동안 국립공원에서 관리현안을 도출하고 정책방향 및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로 관리자의 시각에서 탐방객은 단순히 행위 조절 대상자로서 인식되었으며, 특히 정책 적용 대상으로서 탐방객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배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공원관리 정책의 수립과 적용이 관리자의 고유권한일 수 있으나 관리방안 적용대상인 탐방객의 인식을 고려치 않은 관리정책은 탐방객 저항이라는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 정책은 사안에 대한 탐방객 인식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리자와 탐방객간의 문제점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탐방객 이용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첫 단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측정도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합리적인 탐방객 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적합한 탐방객 모니터링 측정도구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측정도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